군종교구, 한 해 10만 군불자 양성 원력 세웠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2월 13일 신년회견

전후방 · 해외파병부대 위문 방문
불자 병사 데이터 확보 지속 관리
청년 출가장려로 예비군승 확보
법원 스님 "역할 하는 존재 될 것"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


법원 스님은 1월 27일~2월 6일 남수단과 오만,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현지 임무를 수행 중인 장병들을 격려했다. 사진은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청해부대) 방문 모습. **사진 제공=군종특별교구**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가 한 해 10만명 군불자 양성이라는 원력을 세웠다. 해외 파병부대 위문, 계층별 불자 데이터 종합 및 관리 시스템 안정화 등 군 전법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포교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2월 13일 서울 국방부 원광사에서 '2026년 군종특별교구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핵심사업 계획을 밝혔다. 핵심사업은 △호국불교 상징 사업 추진 △한 해 10만명 군불자 양성 △교구 홍보 활동 강화 및 행정·운영시스템 정착 등이다.

법원 스님은 2026년 군종특별교구가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 해 군불자 10만명 양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한 첫 번째 행동으로 해외파병부대 위문을 꼽았다. 법원 스님은 지난 1월 27일부터 아프리카, 중동 등에 주둔하고 있는 한빛부대와 청해부대, 아크부대를 공식 방문해 이국땅에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로하고 그곳에서 불자들에게 부처님 자비를 전한 바 있다. 법원 스님은 "올해는 전후방, 해외 각지에서 수고하고 있는 군불자들과 장병들에게 부처님 자비와 지혜의 빛을 두루 비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을 방문하는 전법활동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내 불자들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불자관리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시스템을 갖춰 나가기로 했다. 현재 장성 불자의 경우 현황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지만 영관 및 위관 불자 장교들의 경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각군 사관학교와 교육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불자 장교의 데이터를 종합하고 야전 군승들과 소통, 임관 초기부터 꾸준히 인연이 이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황을 종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육군훈련소와 공·해군 교육사령부, 해병대 교육훈련단 등에서 수계하는 불자 병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병사들이 전역한 후에도 신행 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신병교육대 수계법회가 여법하게 봉행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한 신병교육대 10곳을 지원하고 추가 지원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올해는 교구 홍보 활동 강화와 행정·운영시스템 정착에도 진력한다.

사회의 탈종교화와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병력감소에 따라, 원활하게 군승을 파송하기 위해 군종교구 역시 다양한 방안을 시도할 계획이다.

법원 스님은 "장학제도를 활용해 수행과 군승 활동을 희망하는 예비군승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교육기관과 종립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던 군승 홍보 활동을 종립고등학교 청년 불자들까지 확대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청소년 불자들에게 출가를 장려하고 군승에 관한 인지도를 상승시켜 잠재적 예비군승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SNS 활용 법회 활성화 및 홍보활동 강화 △규정집 발간 △호국불교총본산 계룡대 흥제사 봉불식 및 낙성법회 봉행 등도 추진된다.

법원 스님은 "불자들에게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가 돼주고, 마음의 고통을 잘 이겨내도록 보살피는 역할을 분명히 할수 있도록 체계적인 활동과 지원을 통해 불법 홍포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 감각으로 전하는 '친근한 불교' SNS로 만난다

조계종, 2월 6일 서포터즈 위촉
불교문화 등 숏폼·카드뉴스 제작



젊은 세대의 시선과 감각으로 한국불교를 새롭게 해석하고 대중과 소통할 '조계종 SNS 서포터즈'가 출범했다. 청년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통해 한국불교의 전통과 가치, 조계종의 주요 정책과 활동 등을 친근하게 전달하며 어렵게 느껴졌던 불교의 진입 장벽을 허물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 총무원 미디어홍보실(실장 덕안 스님)은 2월 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26년도 조계종 SNS 서포터즈 위촉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서포터즈는 미디어홍보실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청년 참여 기반 콘텐츠 제작 활성화 △젊은 감각의 SNS 홍보 콘텐츠 확충 △온라인 기반 불교문화 확산 및 접근성 확대 등을 목표로 SNS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위촉된 5명의 서포터즈는 김다영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학생, 정소담 동국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학생, 지혜은 동국대 불교학부 학생, 문예린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학생, 전유니 동국대 WISE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학생이다.

서포터즈는 올해 12월까지 약 1년간 활동하며 매달 불교문화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SNS를 통해 대중과 소통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은 불교 이슈 및 불교문화 소개 콘텐츠 제작을 비롯해 숏폼 영상·카드뉴스 제작, 종단 주요 행사 취재 및 홍보 등이다. 미디어홍보실은 연 1회 워크숍을 열어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상시 소통을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덕안 스님은 "여러분은 조계종과 대중을 잇는 소중한 가교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이제 불교가 사찰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SNS라는 새로운 공간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야 한다. 그 역할을 서포터즈와 함께 해 나간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서포터즈 활동이 직접 경험하고 느낀 불교의 모습,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내영 기자

동국대 이사회, 2026년도 예산 9965억원

2월 11일, 회의서 승인·의결
돈관 스님 "건학이념 구현"



2026년도 동국대 전체 예산이 약 9965억원으로 승인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 스님)는 2월 11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365회 이사회를 열고 '2026회계연도 각급기관 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예산으로는 △법인일반회계 217억원 △서울캠퍼스 3075억원 △WISE캠퍼스 1342억원 △법인수익사업회계 222억원 △산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496억원이 편성됐다.

의료원 예산은 △경주병원 1807억원 △경주한방병원 29억원 △일산불교병원 2578억원 △일산불교한방병원 100억원 △분당한방병원 119억으로 편성됐다. 이사회는 심의를 거쳐 각급기관 예산을 만장일치로 승인·의결했다.

또한 이사회에는 '2025회계연도 법인 산하 학교 추가경정예산'도 의결했다. 대상은 법인 산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1곳으로, 교육청 및 지자체 목적사업 보조금과 수익자부담 경비를 반영해 92억원 증액한 706억원으로 추가 반영했다.

상정된 '교원 징계의결 요구의 건'에서 이사회는 WISE캠퍼스 간호학부 A교수의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것을 의결해 WISE캠퍼스로 돌려보냈다.

이밖에도 이사회는 △교원 인사 △기금 용도변경 △불용자산 폐기(매각) △대손상각 △2026회계연도 의료원 시설대여(리스) △WISE캠퍼스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사업(기채) 승인 등도 심의·의결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인사말에서 "올해에도 변함없이 건학이념 구현, 청년불자 전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예비 초등생 1981명에 책가방 선물



김재관 KB국민카드 사장(오른쪽)은 2월 10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예비 초등학생 책가방 보내기-너의 입학을 축하해' 사업 기금 2억원을 전달했다.

KB국민카드, 동행에 2억원 후원
크레파스·색연필 등 13종 지원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과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 가정의 예비 초등학생에게 책가방과 입학준비물품을 선물했다.

김재관 KB국민카드 사장은 2월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예비 초등학생 책가방 보내기-너의 입학을 축하해' 사업 기금 2억원을 전달했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이번 사업에는 전국 아동복지사업 수행기관 243곳을 통해 1981명의 아동이 신청했으며, 신청자 전원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선정된 아동에게는 1인당 20만원 상당의 책가방 세트와 입학 준비물품이 지원된다.

입학준비물품은 크레파스, 색연필, 공책 등 학교생활 필수품 13종으로 구성됐으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희망카드도 동봉됐다. 김내영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6 승려연수교육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포교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변화하는 시대의 소통방안
- 생활속의 마음 공부 : 치유와 성장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주 제 :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일 정 : 2026년 9월 7일(월) ~ 9일(수)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인 증 : 조계종 교육원 인증 연수 (30점)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교 육 비 : 20만원
- 입 금 :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과학원
-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 문 의 : 한마음과학원 사무국 031-470-3200/3201 (일,월요일 휴무)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